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노동자가 복구한 기업, ‘아르헨티나 야금산업 공장’(IMPA)

이정은

‘아르헨티나 야금산업 공장 문화센터’(Centro Cultural IMPA La Fábrica. 이하 ‘IMPA’로 약칭함)를 방문하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 덕분이었다. 일전에 이 회사의 존재를 듣고 호기심이 생겼지만, 인터넷 상으로 존재하는 자료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다. 현장 답사를 하고 싶었지만, 평일 오전과 오후에는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터라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단체투어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다른 단체의 방문 일정에 운이 좋게 합류하게 된 것이다. 밖에서 본 건물 외관은 화려한 벽화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차장 입구에 그려진 ‘문화’, ‘일’, ‘저항’, ‘교육’ 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형형색색으로 꾸며진 외부와는 다르게 어둡고 습한 기운이 들었다. 작업을 마감한 늦은 오후의 공장 내부는 조용했지만, 곳곳에 벽화와 예술작품이 질서 없이 흩어져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시내 중심에서 멀지 않은 알마그로 지구에 위치한 IMPA는 아르헨티나의 야금, 플라스틱 제조 회사로 1920년에 독일인과 아르헨티나인의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46년 아르헨티나 산업부문 국유화 과정에서 국가기업으로 흡수되었다가 1960년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당시까지 공장은 세 개까지 늘어났다. 당시 근로자는 3000명에 달했지만, 이미 하향길에 들어선 공장을 매수하려는 기업가는 없었다. IMPA의 운명은 두 가지로 갈렸다. 문을 닫거나,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장



IMPA 입구의 벽화 (출처: 필자)

을 운영하는 방법이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IMPA의 상황은 1970년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알마그로에 위치한 최초공장을 제외하고 2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 결국 1990년대 근로자의 수가 500명까지 줄어들었고, 1995년 멕시코 '데킬라' 경제위기로 조합원 운영진은 더 이상 월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부분의 조합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1998년 50명의 조합원만 공장에 남았다.¹⁾

이후 IMPA는 조합원 간의 오랜 분쟁과 갈등, 토론과 문제해결 노력 끝에 1998년에 복구되었지만, 부도 당시의 부채 문제를 둘러싼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그 사이 IMPA의 넓은 홀 한켠에서는 연극인, 사회운동가 등이 크고 작은 모임을 조직하였고, 노동자의 상황을 세상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1999년 5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IMPA는 각종 워크숍, 방과 후 수업, 언더그라운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대학생, 예술가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1) <https://www.pagina12.com.ar/2001/01-02/01-02-26/pag21.htm>



공장의 이름, 공장 특화 제품과 그 아래 ‘노동자가 복구한 회사’라고 쓰여 있다 (출처: 필자)

공장의 복구 작업에 돌입할 수 있었다. 정전, 기계의 노후화, 가스 차단 등의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지만, 이미 사용한 알루미늄을 재활용해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²⁾ 현재 IMPA는 알루미늄 호일 생산량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둘 째가는 회사이며, 문화공간은 물론 동네 주민을 위한 보건소 역할까지 하는 장소로 거듭났다.

사실상 연대와 협동을 바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회사를 지속해온 조합원과 IMPA의 진화 스토리는 아르헨티나의 현대사에서 사회, 경제, 문화는 물론 국민성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2001년 경제위기 직후, 하루아침에 수 백 개의 공장과 기업이 문을 닫고, 사업주마저 공장과 회사를 버리고 잠적하거나 도주함에 따라,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IMPA와 같은 선례를 거울삼아 문을 닫은 공장 200여개를 노동자가 복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위기를 함께 몸으로 겪은 아르헨티나 국민은 세라믹제작회사 (FaSinPat), 직물공장(Fábrica Brukman), 호텔(Hotel BAUEN)을 포함한 수많은 복구기업이 법적인 위기로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큰 지지 기반이 되었다. 특히 IMPA의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을 아르헨티나인의 문

2) <http://www.recuperadasdoc.com.ar/descripciones/impa.htm>

화, 예술에 대한 사랑을 감안해서 현명하게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이 흥미롭다.³⁾

이렇게 복구기업(Empresa recuperada), 복구공장(Fábrica recuperada)은 경영자이자 고용인이 버리고 간 공장, 기업에서 피고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 민주적 생산조직을 만들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를 뜻한다. 기본적으로 노동자 주도로 기업을 복구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1920년대 이탈리아의 공장 점거, 1968년 프랑스의 5월 혁명 이후 진행된 총파업의 사례에서 영향을 받았다. 물론, 각각의 회사가 직면한 법적 문제, 경영능력과 실적, 비전과 성향에 따라 발전 방향이 다양하다. 특히, 공장의 기기와 설비, 소유를 둘러싼 분쟁이나, 노하우와 문제해결방식과 대처 방법, 이후 발전과정이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모호한 개념임에는 틀림없다.⁴⁾

하지만, 아르헨티나 외에도 우루과이,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등의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경제위기 또는 경제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속출한 회사부도 또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의 배경을 바탕으로 나타난 유사한 형태의 복구기업을 찾을 수 있다. 2005년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회 라틴아메리카 복구기업 대회’에 263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유사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였고, 복구기업을 산업부문의 새로운 사회, 경제 운동으로서 정당성을 지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윤추구, 성장,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체제를 모색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이다.

물론 복구기업의 갈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 건물 실소유주와 법적투쟁은 둘째 치고, 당장 조합원 경영진의 경영능력, 시장 대처능력 및 조합원간의 이해관계 조율 능력의 문제가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연대와 협동이라는 아름답고도 추상적인 가치만으로 여전히 자본주의 구조에서 이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자본주의에는 주식회사라는 구조적 장점과 승자독식문화라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구기업의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 동력을 지속가

3) <https://www.pagina12.com.ar/diario/contratapa/13-74857-2006-10-21.html>

4) <http://webiigg.sociales.uba.ar/empresasrecuperadas/PDF/coyuntura/IMP1.pdf>



공장 내부에 위치한 작은 박물관에서 관리자가 공장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필자)

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는 무엇일까?’라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 이후에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의 보여준 한계는 새로운 패러다임, 또는 대안 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품게 했다. 일찍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복구기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때문에 ‘복구기업이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또 ‘복구기업의 동력으로 어떤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을까?’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화두이다. IMPA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주민과의 소통과 연대, 문화 가치 활용 등의 중요하지만, 단편적인 것들이었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정은 —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 석사과정